

군산, 도시재생 원년 목표

산북동 뉴딜사업·커뮤니티센터 등 완료 마을기업을 지역 핵심주체로 육성 방침도

군산시는 2021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더하고 군산시 전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

총 사업비 63억이 투입된 산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은 마을원터, 농기계복합주차장 조성, 생활도로 개선, 안전인프라 확충, 집수리 지원, 마을공동창고, 마을사랑방,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들이 완료되면서 2018년부터 시작한 3년간의 사업이 마무리됐다.

올해로 4년차에 접어들어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구)수협창고 리모델링사업, 도시숲 조성사업 등은 완료됐고 책보산창 환경개선사업, LH행복주택 및 영상미디어원터 건설사업 등이

본격 추진되고 있어 올 하반기부터는 사업 성과가 더 가시화될 전망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작된 해신동, 소룡동 뉴딜사업도 사업부지 매입, 실시 설계 등 필요한 절차 이행 후, 올 하반기부터는 활성화계획에 의한 연차별 세부사업들이 진행된다.

이외, 구암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생활기반시설 정비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2021년에는 위험건축물 도시재생 인정사업, 생활SOC복합화사업 등 국가도시재생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시에 꼭 필요한 맞춤형 사업들을 발굴

해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주민과 마을공동체를 지역 발전을 이끄는 핵심주체로 육성하여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 설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각 현장센터 주축으로 컨설팅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도시재생 예비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중앙동 뉴딜사업 지역 '책보산창변회'의 한 관계자는 "군산 책보스토리1899(구. 수협창고)내 수재택주특화체험장이 개장되면 우리 마을기업 주력상품인 맥아바 활용 에너지바도 본격 생산·판매되기 때문에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하며 "우리 마을기업이 지역의 소득창출과 공동체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함께 최선을 다해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군산=한경봉 기자

정헌율 시장, '전주대대 이전' 강력 항의

국방부 시설 담당 국장 면담, 철회 및 항공대대 소음 문제 해결 요구

익산시가 춘포면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전주대대 이전 철회와 항공대대 소음 문제 해결을 국방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정헌율 익산시장과 박준배 김제시장은 2일 전주대대의 전주 도도동 이전 반대와 항공대대 소음문제 해결을 요구하기 위해 국방부 시설 담당 국장과 과장 면담을 하고 국방부에 강력 항의했다고 밝혔다.

정헌율 시장은 이 자리에서 항공대대 헬기(군용기)가 익산·김제 시

으로 비행하면서 발생하는 극심한 소음으로 주민들의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막심한 상황임을 설명했다.

또한 도도동 전주대대 예정지역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경제적 피해 해소와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전주대대의 전주 도도동 이전을 철회 또는 전주시 화전동으로 이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헌율 시장은 "전주시의 항공대대 이전 정책으로 인한 헬기 소음으로 인근의 많은 익산·김제 시민들이 심각한

경제적·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보고 있는데다 전주대대 이전계획이 점점 가시화 되면서 주민들의 원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헌율 익산시장, 박준배 김제시장과 각 지역 시민들의 지속적인 항의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2023년 원료를 목표로 전주대대의 도도동 이전을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밝혀 익산·김제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종량제봉투에는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군산시 소각장 본격 가동

군산시는 시민들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2일부터 시 폐지원에너지화시설(소각장)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시는 내초동에 위치한 공공매립장이 포화상태에 되기 전 지속가능한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국비와 민간투자로 '군산시 폐지원에너지화시설'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2020년 11월 시험가동을 통해 소각시설 성능 검증과

안전 기준 충족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바 있다.

주요 시설로는 소각시설과 재활용 선별시설이 있으며 소각시설은 고효율 복합식과 연속 연소식 스토커 방식의 최첨단 시설로, 1일 220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이는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전량을 소각할 수 있는 양이다.

또한 재활용시설은 최첨단 자동선별기 등을 설치해 재활용 선별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였으며 1일 최대 20톤의 재활용 쓰레기를 선별할 수

있다.

소각장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불에 타는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로,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는 종량제 마대에 담아 배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고 혼합 배출하는 경우에는 불법투기로 간주돼 수거되지 않는다.

봉투와 마대에 담기지 않는 생활쓰레기는 기존과 같이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해 배출하면 되며, 재활용 쓰레기 역시 기존과 같이 투명한 비닐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군산=고병만 기자



익산시와 원광대병원, 익산병원은 2일 시청 상황실에서 '아동학대 대응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익산·의료기관, '아동보호체계 구축' 협력

학대피해아동 치료·의료자문, 원스톱 처리

익산시와 지역 의료기관이 아동학대를 대응하고 보다 강화된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시와 원광대병원, 익산병원은 2일 시청 상황실에서 '아동학대 대응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헌율 시장과 윤권하 원광대학교 병원장, 임미경 익산병원 행정처장이 참석해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신속한 응급대응 네트워크 형성 ▲신고접수·병원이송·응급진료 원스톱 처리시스템 구축 ▲학대피해아동에 관한 적극

적 치료 및 의료자문 지원 ▲아동학대 인식개선 및 신고 의무자 교육·홍보 동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시는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지정과 경찰서, 교육지원청,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헌율 시장은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 시도 강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해 아동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내년도 국비 확보 시동

8500억원 목표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익산시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국가예산 8,500억원 확보를 목표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시는 2일 오택립 부시장 주재로 2022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된 내년도 전체 신규·계속 사업은 537건에 국비 건의액 9,366억원으로 집계됐다.

신규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스마트 전장부품 OPEN-R&D 통합지원플랫폼 구축사업 등 62개 사업에 국비 건의액은 999억원이다.

계속사업은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 센터 구축사업,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 및 생태복원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475개 사업에 내년도 국비 건의

액은 8,367억원이다. 익산시는 간접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날 보고한 사업 외에도 지속적으로 정부 추경 등에 대비해 추가적인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50대 중점사업을 선정해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중앙부처 방문, 지역 출신 공무원과의 간담회 개최 등의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오택립 익산부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난 몇 년간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땀과 땀겨 목표한 국비를 확보한 만큼 내년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공휴일 보육서비스 개시 익산, 시간당 1천원 이용

익산시가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휴일까지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이번 서비스는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특화 정책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에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하면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이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평일과 토요일, 광일 야간에만 운영됐다. 하지만 다양한 업종에서 근무하는 영유아 부모님들의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에 대한 시간제보육 수요를 반영해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이용대상은 만 6개월 이상 만 5세 이하 영유아로 시간당 1천원의 보육료만 내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건축물 철거 전 신고해야 군산, 위반엔 과태료 부과

건축물을 허가없이 철거하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어 반드시 해제하거나 이행절차를 밟아야 한다.

군산시는 모든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건축물 해체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모든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건축물 해체가 또는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의 일부 해체, 연면적 500㎡미만 또는 건축물의 높이 12m 미만, 3개 층(지하층 포함)이하인 건축물의 해체,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 해체 등이 해당되며, 이의 건축물의 해체는 허가대상이다. 특히, 건축물 해체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철거 할 경우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군산=한경봉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